

올해도 찾아온 ‘얼굴없는 천사’… 감동의 물결

광산구 하남동에 13년째 기부
“헌신 덕택 연말 따뜻해졌어요”
전남 ‘사랑의열매’ 온도 올려야

“행정복지센터 앞에 기부품 두고 갑니다. 좋은 곳에 써주길 바랍니다.”

광주 지역에 해마다 선행을 베풀고 있는 ‘얼굴 없는 천사’들 덕택에 연말 지역 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나눔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도 목표치를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익명의 독지자가 첨단2동에 백미 20포(20kg)를 전달했다. 그는 자필 편지에서 “신분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다. 추운 겨울

울 돌봄 이웃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백미는 첨단2동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돌봄 이웃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달됐다.

13년째 기부를 실천하는 ‘얼굴 없는 천사’도 있다. 하남동에 거주하는 한 독지자는 매 명절·연말연시마다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과일·쌀·떡 등을 후원하고 있다.

이 독지자는 지난 2011년 설 명절 백미 20kg을 시작으로 24회 동안 △쌀 35포(20kg) △사과 774상자 △배 225상자 △포도 100상자 △바나나 15상자 △떡국떡 246봉지(2kg) 등을 나누었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6000만원에 이른다.

물품을 전달받은 이들은 ‘그 어느 때보



지난 14일 광주 광산구 첨단2동에 익명의 독지자가 백미 20포(20kg)를 기부했다.

광주 광산구 제공

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명절 과일을 기부받은 70대 김모

씨는 “가족 간 돌봄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면식 없는 이웃을 위해 선뜻 제 물건을 나누는 기부자가 정말 대단하다”며 “가족들도 오지 않던 설에 그의 과일 하나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른다. ‘나도 다시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언젠가 꼭 한 번 뵙고 싶다”고 말했다.

박주성 하남동장은 “매년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만 든다”며 “후원 물품은 세밀 추위에 돌봄이 필요한 지역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연말을 맞아 광주·전남에서 따뜻한 나눔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대표 모금 캠페인인 사랑의 온도탑에도 차곡차곡 온정이 쌓여 가고 있다.

이날 광주 사랑의 온도탑은 44.2도, 전남은 51.3도를 달성했다. 모금액 기준 광주 22억4204만4385원, 전남 54억756만9660원에 달한다.

광주는 지난해 12월28일 41.6도를 달성해 올해 2.6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만 전남의 경우 61.9도로 올해 10도가량 낮게 나타나 지역민들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캠페인 종료일은 2024년 1월 31일이다.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이웃들과 상생하며 서로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눔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정성현·강주비 기자

광주·전남 구직청년 80% 이상 ‘취업 불안감’

인재육성아카데미 설문조사

광주·전남 구직청년 80% 이상이 취업에 대한 불안을 느끼면서 구직 활동을 멈춘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사)인재육성아카데미(이사장 강행욱)가 지난 달16~30일 광주·전남 구직청년 4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년 구직활동 현황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수요조사’에 따르면 광주·전남 청년 중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76%)보다 6% 높은 82%였다.

체감하는 취업 난이도에 대해 응답자 53.3%는 ‘어렵다’, 28.5%가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쉽다’고 느낀 청년은 2.1%에 불과했다.

취업의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직무 관련 경험이 적어 면접 시 직무경험이나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 답변이 어렵다’, ‘지방은 일자리가 적어 취업이 매우 어렵다’, ‘채용시장이 경직되어 있다고 느낀다’ 등이다.

취업에 대한 어려움과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구직 활동을 쉬는 청년도 많았다. 구직청년들의 현재 구직 상태를 조사한 결과 △취업 준비 중 42.7% △쉬었음 24.3% △이직 준비 중 15.4% 순으로 나타났다.

‘쉬었음’으로 응답한 이유(복수응답가능)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52.9% △재취업 번아웃 36.4% △취업을 위한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해서 34.7% 등으로 드러났다.

강주비 기자



서구자원봉사자대회

광주 서구자원봉사자 대회가 28일 서구청에서 열려 김이강 서구청장, 우수자원봉사자와 서구청 예인증 수상자 등이 한 해 동안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축하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청렴도’ 전남교육청 2등급·광주교육청 4등급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남도교육청은 2등급, 광주시교육청은 4등급을 받았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종합청렴도에서 전남도교육청은 2등급으로 지난 평가보다 2단계 상승했다.

전남교육청은 청렴체감도에서는 3등급을 받아 1등급 상승했으며 청렴노력도에

서 2등급을 기록했다.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경남·대구·부산·울산·제주·충북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청렴체감도에서 1등급을 기록했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 각각 4등급을 기록해 종합청렴도 결과 지난 평가 3등급에서 1단계 하락한 4등급을 받았다. 4등급 교육청은 강원·경북·인천·전북이다. 또 강원교육청

은 청렴노력도에서 5등급을 기록했다.

이번 청렴도평가는 전국 498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7000명과 공직자 6만7000여명 등 총 22만4000여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점수는 80.5점으로 지난 평가 대비 0.7점 하락했다.

김혜인 기자

광주도시철도 12월 31일 자정 이후 연장운행

광주교통공사가 2024년 신년 맞이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귀가 편의를 위해 열차 연장운행을 실시한다.

광주교통공사는 31일 오후 동구 5·18 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송·신년 타종식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행 종료 시간인 자정 이후에 총 4대

의 열차를 연장 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열차 운행이 끝난 자정 이후에도 문화전당역 기준으로 오전 12시 30분, 오전 1시에 소태와 평동 양 방향으로 각각 추가 열차가 투입된다.

정상이 인턴기자

영원한 봄의도시,
베트남의 작은 프랑스마을 **달랏**

KAC 무안국제공항
PACIFIC AIRLINES
A Member of Vietnam Airlines Group

꽃길만차

무안 ↔ 달랏 직항

999,000원~

3박4일(월) 오전출발 무안-달랏 07:05~10:05 달랏-무안 11:45~18:40

3박5일(목) 오전출발 무안-달랏 20:10~23:10 달랏-무안 22:40~05:35

기간 : 2023년 9월 28일 ~ 2024년 3월 28일

달랏 [중계] ✈ 999,000~

달랏 [고품격] ✈ 1,099,000~

달랏 [나트랑/무안네] 1,049,000~

달랏골프 [54홀] 1,499,000~

월드투어센터 대표번호 070-3607-1134